

무주군, AI 차단 방역 실시

무주IC 거점소독시설 운영 상황 따라 2곳 추가

관내 발생 시 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 도로 통제



무주군은 현재 무주IC 만남의 광장 내에 24시간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축산차량 소독과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무주군은 최근 제주시와 전북 군산, 경기 파주, 부산 기장, 경남 양산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4일 현재 위기경보발령 심각 단계)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부터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해오고 있는 군은 현재 무주 IC 만남의 광장 내에 24시간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축산차량 소독과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홍보와 경각심 공유 위한 입간판과 플래카드를 20곳에 설치하고 공동방제반을 통해 관내 소규모 가금류 농가 215곳(3,388마리)을 소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무주군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현황은 219농가 8만8,000여 마리로, 가금류 사육농가는 물론 주민들에게 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한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군은 인근 시군 발생(2단계) 등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무주 IC 거점소독시설 외에 2곳에 추가로 이동통제 초소를 마련할 계획이며, 관내 발생 시(3단계)에는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모든 도로를 통제하는 등 대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농업소독과 이은창 축산담당은 “가축전염병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 군도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동안 구제역과 AI로부터 지켜냈던 청정 지역 이미지와 농가들의 생업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도 예방과 자체방역에 집중하는 한편, 음력 LED 전광판과 마을방송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에서 아토피 치유’ 환경건강포럼

‘치유 숲’ 서 열려... 가정·보육·학교환경에서 아토피환아 고통경감 방안 논의

진안군은 2017 환경건강포럼을 전북도와 공동 주관으로 8일 진안고원 치유 숲(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에서 아토피환아와 가족,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보건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진안고원에서 아토피 치유’라는 주제로 피부과, 면역학, 산부인과 등 다양한 의료 전문가에서 아토피 예방과 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정과 보육 및 학교환경에서 아토피 환아의 고통경감을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돼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한피부과학회 회장을 역임한 전북대 임철환 명예교수는 “아토피에 대한 질환을 이해하고 치분한 마음으로 아토피 예방과 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정과 보육 및 학교환경에서 아토피 환아의 고통경감을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돼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허석준 산부인과 과장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임신과 태아건강, 전북대학교 이현구 면역학교수의 가려움증에 대한 연구결과, 전북대학교병원

정수진 연구교수의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식이치료의 실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질환 이해와 치료 및 자기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포럼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과 캠프에 참여한 아토피 환아와 가족들은 “직접 아토피 피부 관리에 대한 상담과 체험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중요성을 재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진안고원 치유숲에서의 캠프는 힐링하는 시간으로 가족에 큰 선물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일상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민감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전북도와 환경건강포럼의 공동개최는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진안군은 청정 환경 보전을 국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환경부와 전라북도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진안고원 치유숲이 과학적 전문성에 근거하

여 개인의 일상생활습관과 연계·통합하는 전북권역의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거점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과 진안군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어린이보호식품 점검

진안군은 8일 안전한 어린이보호식품 판매환경 조성 위해 식품소비자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섰다.

군은 월 1회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내에 있는 문방구, 슈퍼 등 29개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과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보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식품 보존과 유통기준 및 냉장·냉동 시설 온도 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완제품 수거 검사를 진행하여 식품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누리 시네마, 작은영화관 기획전

장수군 2개관에서 영화 10편 총 23회 상영

2017 작은영화관 기획전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보는 것을 넘어 배우고 즐기는’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수군 한누리 시네마에서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한누리시네마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0편의 영화를 2개관에서 총 23회 상영한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서는 2016년 전북사랑 UCC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한 백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출한 단편영화 친구의 사전적 정의가 13분 동안 특별상영 된다.

상영작품은 ‘다이노소어어드벤처(백악기 공룡대백과)’, ‘최강전

사 미니특공대: 새로운 악당의 습격’, ‘계춘할망’, ‘국제시장’, ‘판도라’, ‘플라워’, ‘형’, ‘귀향’, ‘너의 이름은’, ‘라라랜드’이다.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 백악기 공룡대백과(더빙)을 상영하는 14일에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후 문해복(전주대 강사, 영화예술강사) 강사와 함께하는 영화 속 기억에 남는 장면을 천 파우치에 그리고 발표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작은영화관 기획전에는 행사 당일 선착순 무료입장이다.

자세한 문은 한누리시네마(063-352-7050)로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설천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의원 화합 한마당 행사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무주군 설천면민들이 뭉쳤다.

8일 설천면주민자치센터 앞 잔디광장에 모인 300여 명의 주민들은 화합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개최와 △안락한 손님맞이, 그리고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결의했다.

반디예술단의 풍물놀이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을 비롯한 태권도원, 무주군 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와 설천면 이장협의회 관계자 등 주민들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만세삼창을 부르며 “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설천면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설천면민들은 “우리 고장에서 세계 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사명과 책임감이 크다”며 “우리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 설천면 체육진흥회(회장 조영구)와 청년회(회장 신남식)가 주최·주관한 것으로, 주민들 스스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여 동기를 불어넣기 위해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가야 문화유산 이야기’ 초청강연

장수군은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꽃피운 장수가야의 역사문화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지역대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앞장서기 위해 8일 오후 3시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수가야 문화유산 이야기’란 주제로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장수지역 가야문화유산을 지속 연구하고 발굴조사 중인 군산대학교 박물관장 객장근 교수(역사학과)와 장수문화유산 이야기’란 주제로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장수지역 가야문화유산을 지속 연구하고 발굴조사 중인 군산대학교 박물관장 객장근 교수(역사학과)를 초청, 그동안 장수가야와의 만남부터 1,500년간 잠들었던 장수가야를 깨울 수 있었던 계기 등 다양한 이야기로 마련됐다.

한편, 장수군은 240기의 왕릉급 고풍

고분과 70개소의 제철유적, 21개소의 봉수유적, 10여 개소의 산성유적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유적의 학술적 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유적들은 어떠한 문헌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고고학적 연구(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중요 유적이다.

초청강연을 기획하고 추진 중인 육영수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장은 “이번 강연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가야사 복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호남이 상생하고 우리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강연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의의회, 정례회 개최...15일까지

결산검사 승인·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18건 안건 처리

무주군의의회가 8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8일간의 걸쳐 회기에 들어갔다.

15일까지 진행될 이번 정례회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무주군세 징수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특히, 8일부터 오늘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을 통

해 예산이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유송열 의장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건설적인 심사를 당부한다”며,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뿐만 아니라 숙박, 교통, 의료 등에 대한 준비에도 철저히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의회는 대회의 불 조성과 성공결의를 위해 태권도 티셔츠를 입고 정례회 개회식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청소년성장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 보건의료원이 주최하고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 키 성장 및 비만 프로그램인 ‘점프! 점프!! 키가 쑥~쑥~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을 지난 5일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5일까지 3개월간 주 2회(총 24회), 화·수·목 중 2일간 오후 4시 이후로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운동처방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운동처방사와 전문의래 강사가 철저히 건강개선행태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점핑 동작을 통한 성장판 자극 △탄성 밴드를 이용한 근력 △유연성 향상 등 운동 능력 향상 외에도 맞춤형 영양 상담 및 건강한 간식 만들기 체험 등, 체계적인 운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 일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 국가대표 코치 역임
- 일본 신타포 국제대회 참가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취득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취득
-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